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冤>의 比較研究

張 延 鎬*

차 례

- | | |
|-------------------|------------------|
| I. 서론 | 2. 被害者 形象의 상관 관계 |
| II. 作品 구조의 상관 관계 | 3. 繼母 形象의 상관 관계 |
| III. 人物 類型의 상관 관계 | IV. 人物 動機의 상관 관계 |
| 1. 家長 形象의 상관 관계 | V. 결론 |

I. 서론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冤>¹⁾은 한·중 고소설사에서 계모와 전처자식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다룬 송사소설의 대표작으로 꼽을만한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계모가 사건의 발단이 되어 전처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자아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화홍련전>에 대한 연구는 형성과정 연구, 이본 연구, 작품론적인

* 上海商學院 한국어학과 교수

1) <李玉英獄中訟冤>은 馮夢龍의 단편소설집 《醒世恒言》 27卷에 수록된 訟事小說이다.

연구²⁾ 등 측면에서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장화홍련전>의 영향수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일찍 金台俊에 의해 제기된 바 있고,³⁾ 김현룡에 의해 세세히 밝혀진 바 있다.⁴⁾ <李玉英獄中訟冤>에 대한 개별 작품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孟犁野가 주인공李玉英의 반항정신을 봉건시대 각성하고 있는 市民形象으로 부각시키기는 했지만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말아서 아쉬움을 남긴다.⁵⁾

필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장화홍련전>의 作品구조를 조명하면서 중국 訟事小說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급한 바 있다.⁶⁾ 특히 <李玉英獄中訟冤>과의 유사성을 밝히면서 두 작품 비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冤>은 계모와 전처자식의 갈등을 가족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씨열행록>도 계모와 전처자식의 갈등을 다룬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써 <李玉英獄中訟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부간의 갈등도 함께 다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로 미루어둔다.

본 연구에서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冤>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作品의 구조, 인물의 유형, 인물의 동기 등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감안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동일 문화권에서 창작된 한·중 訟事小說이 繼母虐待型을 다룬 경우,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각자 다른 문화적 관습과 시대적 현실에서 창작된 작품이 어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이현홍, 「薔花紅蓮伝」, 『古典小說研究』, 華鏡古典文學研究會 編, 一志社, 1993, 585~598쪽 참조

3) 金台俊 著/朴熙秉 校注, 『중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79~180쪽 참조

4)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367~374쪽 참조

5) 孟犁野, 『中國公案小說藝術發展史』, 警官教育出版社, 1996, 93쪽 참조

6) 장연호, 『韓·中 訟事文學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제3장 “작품구조의 상관 관계” 참조

본고에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연구를 토대로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寃> 두 作品의 構造, 人物의 類型, 人物의 動機 등의 상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비교연구는 계모와 전처자식의 갈등을 다룬 한·중 訟事小說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作品 구조의 상관 관계

朴泰尙은 <장화홍련전>의 구조적 의미를 신화비평적 관점에서 고찰 하면서 작품 전체 구조 속의 공간은 天上界·地上界·中間界의 三元的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천상계(출생)→인간계(고난)→중간계(冥府)→천상계→인간계(환생)의 구조로 보면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화홍련의 삶은 전반부에서는 ‘哀憐의 삶’, ‘順從의 삶’, ‘忍苦의 삶’으로서 ‘축소지향적인 삶’의 양상을 지니는 데 비해, 후반부에서는 伸寃을 위해 계모의 흉계를 폭로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확대지향적인 삶’의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때문에 <장화홍련전>의 전반적 구조는 ‘收縮—靜止—擴散’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⁷⁾

禹快濟는 작품의 사건전개 순서에 따라 <장화홍련전>의 구조를 ‘生→死→生’의 3단계적 환생구조로 보고 있으며, 深層構造로서 심리현상까지를 분석하는 수직적 구조를 논하면서 이 작품은 悲劇이 핵을 이루는 비극미가 강조된 비핵구조임을 강조하고 있다.⁸⁾

표면적 구조면에서는 朴泰尙이나 禹快濟의 시각이 별로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심층구조적인 측면에서는 朴泰尙은 계모의 흉계를 폭로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확대지향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고, 禹快濟

7) 이헌홍, 앞의 논문, 596쪽 및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238~243쪽 참조.

8) 禹快濟, 『薔花紅蓮伝』,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746~749쪽 참조.

는 가정비극임을 지적하면서 비극이 핵을 이루는 비핵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장화가 계모의 흉계를 폭로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恨을 풀기 위한 몸부림이고, 繼母虐待型 訟事小說의 특성상 <장화홍련전>은 가정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화, 홍련자매가 끝내는 복수를 하고 쌍녀로 환생하여 자손 창성 영화를 누리는 것은 독자들의 기대심리에 부응한 작가의 낭만적인 의도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비극에서 끝낸 것이 아니고 大團圓의 喜劇으로 전환된 것이다.

明代 馮夢龍의 <李玉英獄中訟冤>도 <장화홍련전>과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어서 두 작품의 사건전개 순서를 비교하면서 두 작품 구조의 상관관계를 밝혀보도록 한다.

장화홍련전

- ①조선 세종대왕 시절
- ②장화·홍련 배좌수의 딸로 탄생
- ③모친 장씨 별세
- ④계모 허씨 들어옴
- ⑤아들 삼형제를 낳음
- ⑥계모의 모함
- ⑦장화와 홍련의 죽음
- ⑧원귀의 출현
- ⑨부사 정동호의 사건처리
- ⑩왕의 하교(판결)
- ⑪계모와 장씨의 처결
- ⑫배좌수 죄를 사면 받고 윤씨와 결혼

<李玉英獄中訟冤>

入詩, 入論, 入話

- ①明朝 正德年間
- ②玉英·桃英·月英 세 자매와 아들 承祖의 탄생
- ③모친 何氏의 별세
- ④계모 焦씨 들어옴
- ⑤아들 하나를 낳음
- ⑥부친 李雄의 戰死, 계모의 모함
- ⑦承祖의 죽음, 玉英의 하옥
- ⑧玉英이 옥중에서 황제에게 편지를 씀
- ⑨황제는 三法司에 명해 사건처리
- ⑩왕의 하교(판결)
- ⑪계모 焦氏와 焦榕의 처결

- ⑬ 장화와 홍련 윤씨의 쌍녀로 환생
- ⑭ 장화 자매 윤필 형제와 결혼 영화 누림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李玉英獄中訟冤>은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詩로 써 서두를 때는데 이것이 入詩이다. 시에서 “晚婦狠毒勝蛇蝎”, “自己生兒似宝珍, 他人子女遭磨滅”⁹⁾이라고 하여 계모의 악독함이 사갈을 능가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계모는 자기 소생은 보배처럼 여기지만 타인의 자식(전처 자식)은 磨滅로 몰아간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入論부분은 入詩에 이어 산문형식으로 시에 대한 議論을 전개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서 작가의 愛憎이 그대로 발로되고 있다. 入論부분에서는 시에서 계모의 마음이 악독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가장 증오스러운 것은 전실 자식을 백방으로 능멸하고 糞土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入話(本文에 들어가기 전의 짧은 이야기)에서는 본 이야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세 등급 인간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장화홍련전>은 入詩와 入論 그리고 入話가 없이 바로 正話로 들어간다. ①에서 ⑤까지는 두 작품이 다를 바 없다.

⑥에서 ⑦을 보면, <장화홍련전>은 애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도 계모의 간계에 넘어가 장화와 홍련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李玉英獄中訟冤>은 무장인 애비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어 결국은 전실 자식 承祖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玉英이는 하옥된다. 承祖는 계모 焦氏와 그 오빠 焦榕이 술에 탄 독약을 먹고 죽게 된다. 高大本<장화홍련전>에서는 타 이본과는 달리 장화를 모해하려는 장면에서 독약미수 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¹⁰⁾

⑧에서 ⑨는 伸冤과 판관의 사건처리 대목이다. <장화홍련전>에서는

9) 馮夢龍, <李玉英獄中訟冤>, 《醒世恒言》, 三秦出版社, 1993, 505쪽.

10) 禹快濟, 앞의 논문, 744쪽 참조.

장화와 홍련이 伸冤하기 위해 冤鬼로 관청에 출몰한다.

장화 형제의 애원한 한이 구천에 사무쳐 매양 설원코자 하매, 철산 부사 이문에 들어 가 지원극통한 원정을 아뢰려하면 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는지라¹¹⁾

장화 자매는 억울하게 죽은 恨을 풀기 위해 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사 이문에 나타난다. 그러다가 장화 자매는 왕의 과견으로 온 정동호라는 강직하고 간 큰 부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아뢰고 친추의 원한을 풀어 줄 것을 애타게 호소한다. 정동호는 두 번에 걸쳐 배좌수 부부를 불러들여 심문하고 쥐의 배를 갈라 물증을 확보함으로써 범행 일체를 자백 받는다.

鬼의 伸冤은 《太平廣記》 卷 128의 <滎陽氏>說話나 권105의 <宋參軍>설화에도 나오고¹²⁾ 《包公案》의 <嚼舌吐血>, <咬舌扣喉>등 소설에도 나온다.¹³⁾ 이는 비현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건이 도저히 해결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원귀의 등장은 없고 玉英이 억울하게 죽은 남동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옥중에서 황제에게 편지를 쓴다. 그 편지를 동생 月英에게 주어 황제에게 올리도록 한다. 황제는 그 사건을 알게 되고 三法司에 명해 사건을 해결토록 한다. 三法司에서는 범인을 잡아들여 문초해 보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刑法을 쓰게 된다. 범인들은 매를 못이겨 범행일체를 자백한다. 이와 같이 <장화홍련전>에서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원귀를 등장시켜 사건을 풀어나가지만,

11) 全圭泰 編, <장화홍련전>, 《韓國古典文學大全集》 1, 中央圖書, 1986, 439쪽.
12) 金鉉龍은 <장화홍련전>과 <宋參軍>의 사건진행을 비교해 보고 두 작품의 사건진행이 완전히 일치된다고 하면서 <장화홍련전>의 伸冤과 關聯된 事件處理關係는 <宋參軍>설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룡, 앞의 책, 370~371쪽 참조.
13) 《包公案·狄公案》, 北京燕山出版社, 1996, 8~17쪽 참조.

<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화홍련전>에서는 물증 확보를 한 뒤, 계모에게 형벌을 가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만¹⁴⁾<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물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刑罰에 의존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다른데 刑罰을 쓰는 것보다 물증 확보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⑩과 ⑪은 왕의 하교(판결)와 죄인에 대한 처결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두 작품이 별 다를 바가 없다. 다 왕이나 황제가 친히 하교하여 죄인을 죽이라 하고 죄인들은 처형을 당한다. 다르다면 <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황제가 죄 없는 계모의 어린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玉英의 간곡한 부탁으로 죽음은 면해주나 계모의 아들로 하여금 영원히 襲職을 못하도록 한다.

<장화홍련전>의 ⑫에서 ⑭는 <李玉英獄中訟冤>에는 없는 부분이다. 장화와 홍련은 배죄수의 딸로 다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大團圓의 결말을 위해서는 또한 불가피한 설정이다. 박태상은 이를 자연의 순환원리에 따른 ‘life-cycle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神話的 構造로 보고 있다.¹⁵⁾

표면적인 구조를 보면, <장화홍련전>은 ‘출생→고난→죽음→원귀 伸冤→사건 해결→환생(大團圓)’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출생에서 죽음까지는 전반부로서 가정 내 구성원간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비극 즉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죽음을 다루고 있고, 원귀 伸冤부터 환생까지는 후반부로서 冤鬼의 伸冤 및 判官에 의한 사건 해결, 그 뒤에 이어지는 장화 자매의 행복한 환생 및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다루고 있다. <李玉英獄中訟冤>은 ‘入詩, 入論, 入話→출생→고난→전실 아들의 죽음→玉英의

14) 쥐의 배를 갈라 이미 쥐인 것이 판명이 되었고, 이와 같은 물증을 확보했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아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을 수 있음에도 형벌을 가한 것은 독자들이 악덕 계모에 대한 응징을 바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15) 설성경·박태상, 앞의 책, 240쪽 참조

伸冤→사건 해결→結詩'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入詩→入論(議論)→入話(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나 좀 다른 이야기)→正話(출생, 고난, 전설 아들의 죽음, 玉英의 伸冤)→結論(사건 해결)→結詩'의 구조는 중국 擬話本小說의 공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¹⁶⁾ <李玉英獄中訟冤>은 擬話本 단편小說로서 그 구조적인 특징을 따른 것이다.

심층구조에서는 <장화홍련전>은 勸善懲惡이 내면에 깔린 낭만적인 大團圓의 喜劇으로 나타나고, <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勸善懲惡은 깔려있지만 죽은 자는 환생함이 없고, 살아있는 자의 노력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현실지향적인 사실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장화 자매를 환생하게 함은 喜劇적인 결말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기대심리를 의식한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소설은 그 시대적 배경에 깔려 있는 勸善懲惡적 倫理主義에 의해 悲劇性이 강조되면서도 결국 喜劇적 終結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¹⁷⁾ 明나라 시대의 訟事小說도 勸善懲惡적 倫理主義가 강조되고 있지만 宋나라 시대의 사실주의 창작기법을 받아들여 현실을 反映하려는 傾向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환생을 설정하여 悲劇을 喜劇으로 轉換시키는 大團圓의 결말을 거의 볼 수 없다.

Ⅲ. 人物 類型의 상관 관계

1. 家長 形象의 상관 관계

가장은 한 가정의 기둥이고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한 가장이 편애로 한 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전체적

16) 黃淸泉·蔣松源·譚邦和, 『明清小說的藝術世界』,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5, 138쪽 참조

17) 丁奎福, 『韓國文學과 中國文學』, 國學자료원, 2001, 375쪽 참조

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즉 전실 자식만 편애하다보니 후실을 홀대하게 됨으로써 계모와 전실 자식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후실이 이해하고 너그럽게 해주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잘해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繼母虐待型의 訟事小說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화홍련전>의 장화 자매의 부친 배무용은 향반으로 좌수를 지냈었는데 성품이 순후하고 가산이 유여하여 그럴 것이 없었다. 장씨와 결혼한 후,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다가 장화와 홍련을 얻게 되자 掌中寶玉 같이 여겼다. 장씨가 세상 뜬 후, 후사를 돌보지 않을 수 없어 혼처를 구하나 원하는 자가 없어서 부득이하여 허씨를 후처로 맞아들인다.

배좌수는 허씨에게서 아들 삼형제를 보았지만 매양 여아로 더불어 장부인을 생각하며 일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추같이 여기고 들어오면 먼저 딸의 침소로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허씨의 시기함을 짐작하고 크게 꾸짖기도 한다. 이는 부성애임에 틀림없다. <李玉英獄中訟冤>의 玉英의 부친 李雄 역시 부성애로 자식들을 극진히 보살폈다. 후처 焦氏의 시기심을 유발할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했으며, 焦氏에게도 전실 자식을 잘 키울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어미 없이 자란 아이들이 부족하더라도 말로 타이르지 절대 질책하지 말라고 한다. 어느 날 아들이 焦氏에게 맞게 되자 李雄은 길이길이 뛰면서 하늘땅이 뒤집힐 정도로 焦氏를 질책한다. 이와 같이 배좌수와 李雄은 부성애가 넘치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그러나 후처를 맞아들인 후, 전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후처의 시기심을 유발하여 자칫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미처 몰랐을 것이다.

<장화홍련전>에서 배좌수가 두 딸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팔짜 기구하여 허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의 슬퍼함을 짐작할지라 이후에 이런 연고 또 있으면 내 처치하여 너희 마음을 편케 하리라”¹⁸⁾하고 다짐을 하지

만 후처의 음특한 간계, 즉 장화가 낙태한 것으로 꾸민 간계에 넘어가 무능한 가장의 본색을 드러낸다.

배좌수는 후처가 가르쳐준 계교를 장쇠에게 그대로 가르치면서 장화를 죽이라고 명한다. 정상적이라면 장화 낙태의 진위 여부를 가릴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장화를 못에 넣어 죽게 만든다. 여기에는 양반으로서의 体面優位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장화의 醜聞이 세상에 알려지면 세상에 나설 수 없다는 생각에 장화를 죽임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체면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오기 때문에 가문의 체면만을 생각하여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의 정조관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데 배좌수도 체면만 중시하다 전실 자식인 두 딸을 모두 잃게 된다.¹⁹⁾

장쇠가 범에게 물려 돌아오자 장화 애매하게 죽은 줄 알고 한탄하며 슬퍼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고 흥련마저 죽게 한다. 결국 배좌수는 가문의 안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다음에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인 것이다.²⁰⁾

<李玉英獄中訟寃>에서 부친 李雄은 文武를 겸비한 무장이었다. 그는 何氏와 결혼하여 삼녀 일남을 낳았다. 何氏는 막내딸을 낳은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李雄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官府의 일도 돌봐야했고, 자식들을 또한 돌봐야하는 입장이어서 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媒婆를 통해 수소문했더니 적지 않은 여인들이 후실로 들어오기를 원해 그중에서 행복한 선택을 한 것이 焦氏다.

焦氏가 李氏 가문에 들어오자 남편이 전실 자식을 편애하는데 시기심을 품고 전실 자식을 박해하기 시작한다. 李雄은 전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후처와의 싸움도 불사한다. 한동안 후처 焦氏가 전실 자식에 대해

18) 全圭泰 編, <장화흥련전>, 위의 책, 432쪽.

19) 禹快濟, 앞의 논문, 754쪽 참조.

20) 李昇馥,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333쪽.

자상하게 대하는 돌변한 태도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경각심이 늦추어진다. 후처의 돌변한 태도에 숨겨진 黑心을 看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아쉽게도 李雄은 전쟁터에서 전사하면서 부친의 역할을 마감한다. 그 뒤로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진다. 焦氏는 전실 아들을 죽일 목적으로 그 어린 아들을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찾아오라고 하면서 먼 길을 떠나보내게 되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술에 독약을 타서 毒死시킨다. 큰 딸 玉英이마저 죽이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하옥시킨다. 李雄이 생전에 후처 焦氏는 그의 오빠와 더불어 전실 자식들이 좀 더 나이가 든 다음, 어린 노비들을 시켜 간통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관직에 있는 제 아버가 남의 비웃음이 두려워서라도 자식들을 자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간계를 꾸민다. 가령 부친 李雄이 살아있었다면 어찌되었을까? 아마도 전실 자식을 눈에든 가시처럼 보던 후처의 태도가 돌변했음에도 추호의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李雄은 배좌수처럼 그 간계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繼母虐待型 訟事小說의 가장은 전실 자식을 지나치게 편애함으로써 후처의 시기함을 유발하게 되고 가정의 안정을 스스로 파괴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장화홍련전>의 경우, 가장 배좌수는 우유부단한 인물, 單純型 인물, 사건의 진위를 가리려는 합리성을 갖지 못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식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무분별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李玉英獄中訟冤>에서 가장 李雄은 사건 발생 전에 잠깐 등장했던 인물로 전실 자식을 계모로부터 보호하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사라진 인물이다. 그도 배좌수와 마찬가지로 單純型 인물로서 전실 자식을 지나치게 편애하다가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후처의 시기심의 불씨만을 지피고는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

2. 被害者 形象의 상관계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冤>두 작품에서 전실 자식이 피해자

가 되는데 피해자는 계모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사경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는 아무런 죄 없이 희생양이 된다. 죄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넘쳐나게 받은 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가 계모의 시기하는 마음을 유발시키고 모해할 생각까지 가지게 만든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남편의, 전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동정, 후처에 대한 냉대, 그리고 전실 자식의 계모에 대한 태도 등에서 비롯되는 소외감이 계모의 성품과 상승 작용을 하여 그녀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다.²¹⁾ 피해자학을 체계적, 학문적으로 구성한 학자 Hentig는 어느 의미에서 피해자가 범죄자를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²⁾ 피해자인 전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늘 친 어미를 생각하면서 계모를 명목상의 어머니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심이 많은 계모의 범죄의식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의 발생단계에서는 아무런 반항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 그러다가 사건의 해결단계에서는 나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惡에 맞서 투쟁하는 戰士로 변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伸冤을 하게 되고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을 풀려고 한다.

<장화홍련전>에서 장화 자매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순종의 삶을 산다. 그러다가 장화는 낙태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못에 빠져 죽는다. 홍련은 장화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고 홍련마저 죽이려는 계모의 구박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절망에 죽음을 택한다. 장화 자매는 자신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여 여러 차례 冤鬼로 나타나 철산 부사에게 원정을 고하지만 부사들은 기절하여 죽는다.

장화 형제의 애원한 한이 구천에 사무쳐 매양 설원코자 하매, 철산 부사 아문에 들어가 지원극통한 원정을 아뢰려하면 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는지라 이렇듯이 철산 부사로 오는 사람은 도입한 이튿날이면

21) 李昇馥, 앞의 책, 327쪽.

22) 지광준, 『범죄학』, 景仁文化社, 2003, 335쪽 참조.

죽으므로 그 후로는 부사로 오는 사람이 없어 칠산군은 자연 폐읍이 되었으며, 연년이 흉년이 들어 사람이 아사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사방으로 헤어져 한 고을이 텅 비게 된지라²³⁾

이와 같이 장화 자매는 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끈질기게 伸冤한다. 사람들은 더는 살 수 없어 고향을 떠나 한 고을 전체가 텅 비게 되지만 그래도 장화 자매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새 부사로 정동호가 부임하면서 장화 자매는 伸冤을 재시도 하게 되고 첫 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좌절함이 없이 재시도를 해 쥐의 배를 가를 것을 제안함으로써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하도록 한다. 정동호는 장화 자매의 증언에 따라 쥐의 배를 갈라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계모를 형틀에 매고 문초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는다. 계모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장쇠는 교살을 당한다. 장화 자매는 죽어서 冤鬼가 된 후, 순종만 하던 어진 양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戰士로 변한다. 계모에 대한 호칭도 ‘흉녀’, ‘간악한 계집’으로 바뀌면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한다.

<李玉英獄中訟冤>에서 전설 자식들 모두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주된 피해자는 전설 아들 承祖와 딸 玉英이다.²⁴⁾ 이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진 양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戰死하자 보호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계모의 범행대상으로 노출된다. 계모는 오빠 焦榕과 계책을 꾸미고 承祖를 죽일 목적으로 심복 노비 한 명을 붙여 承祖더러 아버지의 遺骨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먼 길을 떠나보낸다. 열살도 안 되는 承祖가 길에서 병이 나서 사경에 이르게 된다. 노비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承祖를 버리고 집에 돌아간다. 이것이 계모가 바라던

23) 全圭泰 編, <장화홍련전>, 위의 책, 439~440쪽.

24) <李玉英獄中訟冤>에서 둘쫓 딸 桃英은 계모에 의해 부갓집에 팔려 가고, 셋쫓 딸 月英은 계모의 핍박을 못이겨 어린 나이에 거지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계모의 극악무도함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였는데 承祖는 한 老嫗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오게 된다.

承祖가 죽은 줄만 알았던 계모는 承祖를 죽일 또 다른 계획을 꾸민다. 承祖는 영문도 모른 채 계모가 직접 술에 탄 독약을 마시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玉英은 여동생 月英과 함께 계모의 학대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16살 되던 해 하루는 신세를 한탄하며 “영춘시(迎春詩)”와 “별연시(別燕詩)”를 읊으면서 帖에 적었는데 이 시가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다. 계모는 시의 내용을 부연 확대해 해석하면서 玉英이를 외간 남자와 간통한다는 죄명을 씌워 하옥시킨다. 하옥되기 전에 玉英은 계모의 성화를 못이겨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다행이 목을 맨 줄이 끊어져 죽음을 면한다.

玉英은 옥중에서 희망을 버리고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옥된 뒤, 2달여가 지나 현란한 문필로 그의 억울함과 남동생의 억울한 죽음, 계모의 죄행을 날날이 밝혀 그 奏章(상주문)을 황제에게 올린다. 그 편지는 동생 月英을 통해 황제에게 전달되며, 황제는 三法司에 명해 사건을 밝히도록 한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三法司官은 刑法을 써서 계모와 그 오빠 焦榕한테서 범행일체를 자백 받게 되고, 계모 焦氏와 오빠 焦榕은 처형을 당하게 된다. 황제는 격분함을 참지 못해 焦氏의 어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玉英의 간곡한 간청으로 어린 아들 亞奴는 사면된다. 여기서 용감한 戰士로 변한 玉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봉건시대 각성하고 있는 시민의 형상을 부각시킨 것으로써 宋元시대의 송사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²⁵⁾

장화 자매와 承祖 모두 계모에 의해 죽게 되는데 장화 자매는 물에 빠져 죽게 되고, 承祖는 술에 탄 독약을 먹고 죽게 된다. 그렇다면 ‘물’에서의 죽음의 意味는 무엇이고 독약을 먹고 죽은 의미는 무엇일까? 물은 생명의 源泉이라고 할 수 있다. 金烈圭는 “江河는 그 물로 말미암아서 人類學的으로는 生命의 源泉 곧 生生力象徴의 大宗이다. 그것은 久遠의

25) 孟犁野, 앞의 책, 93쪽 참조

生命의 흐름이다.”²⁶⁾라고 하면서 물은 ‘生生力象徴’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태상은 물이 표상하는 이미지는 ‘生生力象徴’, ‘永遠한 生命 象徴’, ‘女性象徴’, ‘풍요로움 象徴’ 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이런 상징성은 은연중에 장화 자매의 환생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심청전>에서도 심청이 물에 투신하는데, 환생하여 아버지의 먼 눈을 뜨게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지만 문학작품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장화 자매는 배좌수의 딸로 다시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毒藥은 독성을 가진 약제로써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약을 먹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²⁸⁾ 古代 중국의 민간인들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흥기를 많이 썼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독약을 많이 이용했다. 때문에 문학작품에서도 독약으로 살인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²⁹⁾ 독약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독약을 술에 타서 가해자에게 먹이는데 이는 술에 탄 독약이 인체에 빨리 흡수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好意로 권하는 술에 독약이 들어있음을 쉽게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아예 환생이라는 설정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玉英에게 죽은 남동생과 자신 및 역시 피해자인 두 여동생을 위해 伸冤할 중임을 맡긴 것이다. 사실상, 중국 송사소

26) 설성경·박태상, 앞의 책, 247쪽에서 재인용.

27) 설성경·박태상, 앞의 책, 248쪽 참조.

28) <백설공주>에서 주인공이 독약이 들어있는 사과 한 조각을 먹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녀는 죽어서도 얼굴색이 변함이 없었고 마치 잠든 듯한 것을 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29) 《棠陰比事》에 수록된 <杜亞疑酒>(《文淵閣四庫全書》 法家類, 子部三五, 《欽定四庫全書》子部, 棠陰比事, 臺灣商務印書館, 973쪽 참조), 《包龍圖判百家公案》에 수록된 제6회 <判妒婦殺妾子冤>(曹亦冰, 『俠義公案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년 12월, 145쪽 참조), 《包龍圖判百家公案》에 수록된 제47회 <答孫仰雪張虛冤>(曹亦冰, 앞의 책, 139쪽 참조) 등 宋代 설화와 明代小說에서 술에 독약을 타서 살인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설에서 죽어서 원귀로 나타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환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³⁰⁾

장화 자매나 玉英은 하나 같이 미인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아주 영특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장화의 형제 점점 자라매,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뿐더러 효행이 특출하니, 좌수 부처 형제의 자라감을 보고 사랑함이 비할 데 없는 중 너무 성숙함을 매우 염려하더니³¹⁾

장화 자매는 얼굴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기질도 기묘하고 효행 또한 뛰어나다고 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화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장쇠를 보고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흥련을 어여뻐 여겨 잘 인도하여 부모에 득죄함이 없게 하고 부모를 모셔 백세무량함을 바라노라”³²⁾라고 말한 데서도 그 효심을 알 수 있고, 장화 자매가 재차 부사 정동호의 꿈속에 冤鬼로 나타나 쥐의 배를 갈라 사건을 해명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소녀의 아버지는 본성이 착하와 어두운 탓으로 흥녀 간계에 빠져 흑백을 분변치 못함이오니, 십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바라나이다.”³³⁾라고 하면서 부친은 죄가 없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데서도 장화 자매의 효심을 알 수 있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은 오로지 자기들

30) 《包龍圖判百家公案》에서도 독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6회 <判妒婦殺妾子冤>에서 처는 첩이 두 아들을 낳아 남편의 총애를 받는 것에 시기심이 대발하여 술에 독을 타 첩과 첩의 두 아들을 독살한다. 3년 뒤, 첩은 두 아들을 데리고 包公의 꿈속에 冤鬼로 나타나 冤情을 哭訴한다. 범인은 능지처참을 당함으로써 첩은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을 풀게 된다. 이 소설은 처첩 갈등을 다룬 송사소설인데 피해자가 毒殺되어 冤鬼로 나타나지만 환생하지는 않는다. 曹亦冰, 앞의 책, 145쪽 참조.

31) <장화흥련전>, 앞의 책, 431쪽.

32) <장화흥련전>, 앞의 책, 436쪽.

33) <장화흥련전>, 앞의 책, 442쪽.

을 나이주고 키워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혈연의 정이란 인위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효심’을 부각시켜 감동을 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³⁴⁾

<李玉英獄中訟冤>에서도 玉英은 미녀에다가 영특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때 옥영은 10살이 되니 용모가 수려하고 뛰어난 그림 속의 인물과 닮이 없었다. 천성이 총 명하여 책을 읽으면 기억하고 시를 읊고 賦를 짓기도 했다. 꽃을 본떠 刺繡함에 있어서도 가르치지 않아도 절로 터득했다.³⁵⁾

玉英의 미모를 그림 속의 미인에 비유했고, 총명함을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다. 玉英은 옥중에서 황제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첫머리에 보면,

신이 선인들의 말을 듣건대: 5형은 불효를 가장 큰 죄로 치죄하고, 4덕은 의리가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³⁶⁾

라고 하면서 불효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옥영의 남동생 承祖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아버지의 遺骨을 찾아온다. 이는 전실 자식들의 효심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미모에다가 영특함까지 갖추고 효심 또한 남다른 전실 자식들이 계모의 시달림을 받다가 계모의 계교에 빠져들어 비참하게 죽거나 하옥되어 죽음을 앞두게 함으로써 전실 자식에 대한 독자들의 동

34) 장연호, 앞의 논문, 108쪽 참조

35) “那時玉英十齡，長得婉麗飄逸，如畫中人物。且又賦性敏慧，讀書過目成誦，善能吟詩作賦。其他描花刺繡，不教自會。” 馮夢龍，〈李玉英獄中訟冤〉，앞의 책，512쪽.

36) 馮夢龍，〈李玉英獄中訟冤〉，앞의 책，532쪽.

정심, 계모에 대한 독자들의 증오심을 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3. 繼母 形象의 상관관계

古典小說에서 계모를 惡女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통례이다. 訟事小說에서도 계모는 선하고 어진 전처와는 상반되는 惡女의 형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화홍련전>에서는 계모의 외모에 대한 묘사부터 惡女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때 좌수 비록 망치의 유언을 생각하나, 후사를 아니 돌아볼 수 없는지라 이에 혼처를 두루 구하되, 원하는 자 없음에 부득이하여 허씨로 장가드니, 그 용모를 논할진대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통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 하고 소리는 이리소리 같고 허리는 두 아릅이나 되는 것이 계다가 곰베팔이요 수중다리에 쌍언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열 사발은 되고 엽기는 콩명석 같으니, 그 형용은 차마 바로 보기 어려운 중에 그 심사가 더욱 불량하여 남의 못할 노릇을 골라가며 행하니...³⁷⁾

이러한 인물묘사는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과장된 묘사이기는 하지만 惡女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고 작가의 惡女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용모가 험악하다고 하여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모가 잘생겼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허씨의 경우는 차마 보기 어려운 용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심사가 그 험악한 용모보다도 더욱 불량하여 남의 못할 노릇을 골라가며 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허씨는 배좌수가 혼처를 구하다가 원하는 자가 없게 된 상황에서 틈을 노리고 배씨 가문에 들어온다. 시집 온 뒤에 연하여 아들 삼형제를

37) <장화홍련전>, 앞의 책, 431~432쪽.

남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에는 대립갈등이 크게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좌수의 자녀사랑이 점점 심해지자 시기하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화 홍련을 모해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

<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장화홍련전>과는 달리 계모 焦氏는 용모가 단아하고 총명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초씨를 보면 용모가 단아하고 자수에도 능해 총명끼가 넘친다. 다만 마음씨가 독해 네 명의 아들딸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또한 남편이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때때로 자식들을 잘 키우라고 당부하는 것에 점점 나쁜 마음을 품게 된다.³⁸⁾

焦氏는 용모가 단아할 뿐만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한 여인이다. 李雄은 배좌수와는 달리 여러 여인 중에서 焦氏를 선택한다. 때문에 焦氏는 선택받은 후처로서 李雄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성품은 용모와는 달리 시기심으로 가득 차 남편이 전실 자식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자 허씨와 똑 같이 전실 자식을 모해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

계모의 성격이 포악해진 것은 자기의 존재의미를 상실한 한 인간이 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욕망을 시기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모의 시기심의 발로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선천적으로 성품이 사나운 데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후천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천성적 악함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는 항상 마음 쓰는 것이 불측하여 남의 못할 노릇을 좇아가며 행한다. 이는 선천적으로 마음속에 시기심이 짙차 있음을 말한다.³⁹⁾<장화홍련전>의 계모를 보면 인물묘사에서 알 수

38) ‘那焦氏生得有六七分顏色，女工針指，却也百伶百俐，只是心腸有些狠毒，見了四个小兒女，便生嫉妒之念。又見丈夫十分愛惜，又不時叮囑好生撫育，越發不懷好意。’ 馮夢龍，<李玉英獄中訟冤>， 앞의 책， 508~509쪽.

39) 禹快濟， 앞의 논문， 751~752쪽 참조.

있듯이 인물도 흥한데다가 심사까지 불량하여 남이 못하는 노릇을 골라 가며 한다고 했으니 선천적으로 성품이 사나운 형에 속하며 거기다가 후천적 환경 즉 배좌수가 전처의 자식을 편애하므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고 느끼게 되어 그 시기심은 극도에 달한다. 이러한 계모를 추악하게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李玉英獄中訴冤>의 焦氏는 인물이 <장화홍련전>의 허씨와 비교 안 될 만큼 예쁜 편이고 게다가 총명하기까지 하지만 “다만 마음씨가 독해 네 명의 아들딸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⁴⁰⁾고 한 것을 보면 焦氏도 허씨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성품이 사나운 형에 속하며 후천적인 환경을 보면, 남편이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전실 자식들을 잘 키우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에 焦氏는 시기심을 품게 된다. 焦氏가 결혼할 때 나이 16세이니 한창 사랑을 받아야할 나이에 후처가 되어 어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시기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나이이다. 남편의 사랑을 전실 자식들이 독차지함으로써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전실 자식들이 없다면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焦氏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그 마음이 시기 질투로 타올라 잔혹함을 드러낸다.

허씨나 焦氏는 다 시기심으로 출발하지만 그 시기심이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전실 자식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한다.

허씨는 장화, 홍련을 모해하고자 주야로 계교를 생각한다. 그녀는 큰 쥐 한 마리를 튀하여 피를 바르고 지는 장화의 이불 속에 넣어놓고는 장화가 낙태한 듯이 꾸며 불륜의 죄를 장화에게 덮어씌웠다. 장화는 꿈쩍 없이 당했고 나중에는 이 죄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홍련은 장화가 죽은 뒤 울음으로 나날을 보냈고 그러다가 언니를 따라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허씨는 장화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이 아니고 남편을 통해 장쇠에게 지시를 내리게 하고 장쇠를 시켜 장화를 죽이게 한 것이다.

40) 馮夢龍, <李玉英獄中訟冤>, 앞의 책, 508쪽.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허씨가 원흉이지만 그 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쾌자를 붙렸고 홍련이마저 죽이려고 한다. 여기서 허씨의 음특함과 독사보다도 더 독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焦氏는 일단 전실 아들부터 죽인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죄명도 덮어씌우지 않고 焦氏가 직접 술에 독약을 타 承祖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 왜 큰딸을 먼저 죽이지 않고 아들부터 죽였을까? 焦氏가 李雄의 후처로 들어와 난 자식이 아들이다. 장차 아버의 관직이나 가업을 이어갈 사람은 아들일 것이다. 전실 아들이 살아있으면 걸림돌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실 아들을 죽인 후 큰딸마저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녀 역시 허씨가 생각해낸 불륜의 죄명을 큰딸 玉英에게 씌워 하옥시켜 죽이려고 한다. 허씨와 다른 점은 玉英이 지은 시에서 불륜의 ‘증거’를 찾았다는 것이다. 玉英이 지은 시는 <迎春詩>이다.

柴扉寂寞鎖殘春，滿地榆錢不療貧。
云鬢衣裳半泥土，野花何事獨撩人。41)

시에 보면, 나무문짝에 간혀 청춘을 적막하게 보내는 신세를 노래했고, 느낌나무열매는 가득한데 빈한함을 달래지 못함을 한탄했으며, 귀밑머리 드리운 옷에는 반은 흙투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갈아입을 옷조차 없음을 시사한 것이고, 마지막 구에 “들꽃은 어이하여 홀로 남을 피는고?”라고 했는데 계모는 아마 마지막 구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분명 玉英이 자기의 가련한 신세를 한탄하여 지은 시인데 이 시와 다른 한 시<別燕詩>42)가 불륜의 증거가 되어 玉英이는 하옥된다. 그녀는 항변해보지만 官吏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刑罰을 가함으로써 玉英은 거저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焦氏의 오빠 焦榕의 인맥이 작용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부패무능한 관아의 진상을 폭로한

41) 馮夢龍, <李玉英獄中訟寃>, 앞의 책, 529쪽.

42) <別燕詩>는 그 내용이 소설에 나와 있지 않아 시의 내용을 알 수 없다.

것이기도 하다.

두 작품 속의 계모는 다 絶對惡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판결을 받고 刑場의 이슬로 사라진다. 계모의 죽음에는 惡人은 천벌을 면치 못한다는 勸善懲惡적인 작품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교윤리에 집착했던 만큼 勸善懲惡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IV. 人物 動機의 상관 관계

어떠한 작품이든지 인물의 행위에는 다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訟事文學에서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에는 다 동기가 있고 그 동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가해자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는 다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어떤 계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행동기에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성이 따른다.⁴³⁾

사건처리에는 판관의 판결동기가 개입된다. 판관의 판결동기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여기서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판관의 판결 동기 등을 살펴볼 것이다.

<장화홍련전>에서 허씨는 전실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자기가 소외되는 것이 너무도 못마땅하여 시기하게 되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다.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단지 계모의 일방적인 의도만은 아니다.

그래도 그것이 계집이라고 그 달부터 태기 있어 연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으매, 좌수 그로 말미암아 저으기 부지하나, 매양 여아로 더불어 장부인을 생각하며, 일시라도 두 딸을 못보면 삼추같이 여기고 들어오

43) 장연호, 앞의 논문, 114쪽 참조

면 먼저 딸의 침소로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너의 형제 깊이 규 중에 있어 어미 그리워함을 노부도 매양 슬퍼하노라.』하며 애연히 여기는지라 허씨 이러함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화 홍련을 모해하고자 피를 생각하더니, 좌수 허씨의 시기함을 짐작하고 허씨를 불러 크게 꾸짖어 가로되, 『우리 본디 빈곤히 지내더니, 전처의 재물이 많음으로 지 금 풍부히 살때, 그대의 먹는 것이 다 전처의 재물이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할 바이어늘, 저 여아들을 심히 괴롭게 하니, 무슨 도리뇨. 다시 그리 말라.』하고 조용히 개유하나,···⁴⁴⁾

배좌수는 후처에게서 아들 삼형제를 본다. 그러나 그는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늘 전처를 생각하면서 전실 자식인 장화와 홍련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감싸준다. 지금 현실에서도 여인이 재혼하여 남편과 같이 살면서 남편이 전실 자식만 돌보고 자기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소외시킨다면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허씨가 시기심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또한 배좌수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후처를 들였고 후처에게서 난 아들 삼형제도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내 신·구 성원간의 화해를 이끌어냈어야 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인 배좌수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李玉英獄中訟寃>에서 焦氏는<장화홍련전>의 허씨와는 달리 예쁘장한 얼굴과 妙齡, 꽃같은 분장으로 남편의 환심을 사게 되고, 게다가 남편을 잘 섬기기까지 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된다. 남편은 거의 후처가 하자는 대로 해준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서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전실 자식에 대한 홀대이다. 계모가 전실 자식의 허물을 보려고 하면 李雄은 “어미 없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고 아직 어리고 순진하니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좋은 말로 가르치도록 하고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⁴⁵⁾고 말한다.

44) <장화홍련전>, 앞의 책, 432쪽.

45) “可憐他沒娘之子, 年幼嬌痴, 倘有不到之處, 須將好言訓誨, 莫要深責!” 馮夢龍,

焦氏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만족함이 없다. 그녀는 남편이 전실 자식을 편애하는데 불만을 품고 남편이 간곡하게 당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실 자식을 욕하고 때린다. 그녀는 전처 자식을 포용과 보살핌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애정의 경쟁상대로 생각한 것이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부부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 焦氏는 이에 악심을 품고 전실 자식을 더 학대한다.

焦氏는 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더 심해지는 것일까? 이는 이기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했기 때문이다. 천성적으로 악하고 너그럽지 못한 그녀로서 남편의 전실 자식에 대한 편애를 시기하게 되고 그것이 증오심으로 표출된 것이다. 천성적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인 남편이 새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의 화목을 위해 편애함이 없이 모든 가족 성원을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했어야 하는데 배좌수와 마찬가지로 李雄한테서도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계모의 시기심이 점점 심해지면서 전실 자식에 대한 학대로부터 심화되어 죽일 생각을 하게 된다. 허씨는 장쇠를 시켜 큰 쥐를 튀하여 피를 바르고 장화가 자는 틈을 타 장화의 이불 속에 넣고는 장화에게 낙태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게 한다. 그 뒤 계모는 흥련이마저 죽이려고 주야로 생각한다. 흥련은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고 그도 언니를 따라 물에 투신하여 짧은 인생을 마감한다. 허씨는 왜 전실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그동기는 바로 재산이 전실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장화와 흥련이 죽게 되면 사기가 낳은 자식들이 장차 배좌수의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생각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다.⁴⁶⁾ 이는 흥련이 정부사의 꿈속에 冤鬼로 나타나 계모의 죄증을 밝히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李玉英獄中訟冤>, 앞의 책, 509쪽.

46) 장연호, 앞의 논문, 120쪽 참조.

소녀 형제는 그래도 어머니라 계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오되, 박대와 시기는 날로 심하오니, 이는 다름아니오라 본대 소녀의 어머니 재물이 많사와 노비 수천구요 전답이 천여석이니, 보화거재두량이라 소녀 형제 출가하오면 재물을 다가질까 하여 시기심을 품고 소녀 형제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고자 하와 주야로 모해할 뜻을 두었는지라...⁴⁷⁾

이는 홍련의 일방적인 증언이기는 하지만 믿을만 하다. 아니면 장화 자매를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장화 자매가 장성하면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주어 출가시키면 그만이다. 배좌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홍련의 말대로 계모가 과연 그들이 재산을 다 가져갈 것 같아 속앓이를 하면서 죽일 생각을 한 것이 아닐 것이다. 계모는 재물이 조금이라도 전실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이 싫었을 것이고, 배좌수의 전부의 재산이 자기 자식한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재산을 노렸던 범행 동기가 잘 드러난다. 이런 동기라면 계모 허씨가 나중에는 남편까지 모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禹快濟는 허씨의 심리상태를 병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남에게 포악한 짓을 하면서 즐기려는 심리상태를 사디즘(가학성 : Sadism)이라 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즐겨하는 것을 매저키즘(피학성 : Masochism)이라 한다면, 계모는 철저한 加虐性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하고 있다. 즉, 전실 자식들을 무참하게 죽여놓고 성취감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⁸⁾ 이런 병적인 심리가 더 심해지고 배좌수의 전 재산을 완전히 자기 자식의 수중에 넣으려는 목적이라면, 다음에 제거할 대상은 남편일 것이다.

<李玉英獄中訟寃>에서는 焦氏의 생각을 통해 그 동기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7) <장화홍련전>, 앞의 책, 440쪽.

48) 禹快濟, 앞의 논문, 753쪽 참조

“이 한배의 사악한 아들과 딸들이 없다면 관직과 재산상속은 나의 친 자식의 몫인데 지금 명이 짧은 여러 쓸데없는 자식들을 남겨놓고 있으니,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들에게 먼저 재산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되면 훗날 재산이 얼마 남지 않게 되고 내 자식에게는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생을 헛고생만 한 것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남편을 달래고 말로 부자지간에 이간을 놓아 두, 세 명을 죽이고 한 명 정도만 남겨두면 쉽게 될 것이다.”⁴⁹⁾

이는 焦氏가 전실 자식만 보면 시기심이 나고, 남편이 매양 전실 자식을 홀대하지 말고 잘 키우라고 부탁하면서 극진한 사랑을 보이는 데서 시기심이 발로하여 자기의 생각을 발설한 것이다. 여기서 焦氏의 범행동기 역시 재산을 노린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녀는 남편과 전실 자식 사이에 이간을 놓아 전실 자식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령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장화홍련전>에서처럼 쥐를 튀하던 아 니면 다른 어떤 계교에 의해 전실 자식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焦氏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금방 결혼했을 때이고, 16살의 어린 나이에 아직 자기가 낳은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는 데 먼 훗날 자기 자식의 재산문제를 생각해둔 것이다.

焦氏는 남편이 돌아가자 바로 그 아들부터 제거한다. 전실 아들이 자기 아들의 경쟁자이고 그 아들을 없애면 남편의 관직승계는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며, 재산도 쉽게 아들한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제거할 목표는 전처의 큰딸 玉英이었다. 焦氏는 玉英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하옥시키고 옥중에서 죽이려고 한다. 玉英이 죽으면 사실상 李氏 가문은 파멸에 이른다. 동생 桃英은 계모

49) “若沒有這一窩子賊男女，那官職產業好歹是我生子女來承受。如今遺下許多短命賊種，縱掙得潑天家計，少不得被他們先撥頭壽。設使久后，也只有今日這些家業，派到我的子女，所存幾何，可不白白与他辛苦一世？須是哄熟了丈夫，然後用言語唆冷他父子，磨滅死兩三個，止存个把，就易處了！”馮夢龍，〈李玉英獄中訟冤〉， 앞의 책， 509쪽.

에 의해 다른 집에 팔려갔고, 막내 동생 月英은 계모의 꾀박에 거지가 된 상황이라 남은 두 동생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이 허씨와 焦氏는 다 재산을 노리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해결방법을 택한다. 두 계모는 전실 자식에 대한 남편의 父性愛에 질투하게 되고 이러한 시기심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면서 전실 자식에 대한 증오로 번지게 되었으며, 재산문제와 직결되어 전실 자식을 아예 없애으로써 친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려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범행 동기는 상속권과 재산을 독차지 하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허씨와 焦氏의 죄행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재판에 의한 해결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한 가정 내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급상승하게 되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한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왕은 이러한 전형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기강을 바로 잡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심리학의 대가인 융은 “당자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거의 神콤플렉스에 의해 결정된다. 그는 모든 것을 善·惡의 기준으로 지각하고, 판단하며, 惡人에게 대해서는 지옥의 불과 천벌을, 善人에게 대해서는 영원한 낙원을 설교한다.”라고 한 바 있다.⁵⁰⁾ 판결자인 왕의 입장에서는 善·惡의 기준으로 지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惡德 계모에게 천벌을 내림으로써 세상의 모든 계모들을 戒하고자했던 것이다. 하여 판결 속에는 이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왕의 의도가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왕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흥녀의 죄상은 만만불측하니, 흥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그 아들 장쇠는 교하여 죽이고 장화 형제의 혼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워 표하여 주고 제 아버지는 방송하라.⁵¹⁾

50) 설성경·박태상, 앞의 책, 255쪽에서 재인용.

51) <장화홍련전>, 앞의 책, 444쪽.

허씨는 왕의 판결에 의해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 아들 장쇠는 교살 당한다. 왕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동기는 나라의 가족 윤리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이 흥녀를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유교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기강이 무너지면서 가족성원간의 갈등이 가심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씨와 장쇠를 처형함으로써 殺一警百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으며, 또한 장화 형제의 혼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우 주게 함으로써 勸善懲惡의 교훈적 효과도 얻으려고 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李玉英獄中訟寃〉에서도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가 최종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결동기에는 역시 죄인인 焦氏와 同謀자인 오빠 焦榕을 처결함으로써 계모의 戒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으며, 나라의 윤리적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의도가 깔려있다. 황제는 아무런 죄 없는 계모의 아들 亞奴까지 처형하라고 판결했다가 玉英의 간곡한 간청을 받아들여 죽이지는 않고 종신토록 龔職을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도 사실 亞奴한테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죄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관직에는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황제가 죄 없는 亞奴까지 죽이라고 한 것은 중국 고대의 滅族이라는 刑罰과도 무관하지 않다. 滅族은 가족 내의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면 부모, 형제, 처, 자식까지 일가족을 모두 죽이는 刑罰을 말한다. 이러한 刑罰은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 것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愚昧한 刑罰이다.

V. 결론

이상으로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寃》 두 作品의 구조, 人物의 類型, 人物의 動機 등 측면에서 그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繼母가 사건의 발단이 되어 전처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기가

지 하는 극단적인 자아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두 作品은 ‘계모-전처자식’의 관계에서 빚어지기 쉬운 윤리체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무능한 가부장으로 인해,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 모습을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물론 계모와 전처자식 간의 갈등에서 모든 책임이 다 계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따져봐야 하고, 전실 자식들의 계모에 대한 태도도 따져보아야 한다.

두 作品의 표면적인 구조를 보면, <장화홍련전>은 ‘출생→고난→죽음→원귀 伸冤→사건 해결→환생(大團圓)’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李玉英獄中訟冤>은 ‘入詩, 入論, 入話→출생→고난→전실 아들의 죽음→玉英의 伸冤→사건 해결’로 나타나고 있다. ‘入詩, 入論, 入話’부분은 중국 擬話本 訟事小說에 흔히 나타나는 구조로써 이 부분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계모의 악독함을 밝히고 있으며, 작가의 議論을 펼치고 있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이런 구조가 보이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두 作品을 보면, 출생에서 죽음까지는 전반부로서 가정 내 구성원간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비극 즉 전실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다루고 있고, <장화홍련전>의 경우, 원귀의 伸冤부터 환생까지는 후반부로서 원귀의 신원 및 判官에 의한 사건 해결, 원만한 사건해결 뒤에 이어지는 장화 자매의 환생 및 그들이 살아서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조로 되어있다. <李玉英獄中訟冤>의 경우, 원귀의 伸冤이나 환생 및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분은 없고, 玉英의 伸冤에 의해 사건이 황제에게까지 알려져 사건이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으로 되어있다.

심층구조로는 <장화홍련전>의 경우, 장화·홍련의 죽음은 비극임에 틀림없지만 사건이 해결된 뒤, 배좌수의 쌍녀로 환생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낭만적인 大團圓의 喜劇이라고 할 수 있다. <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죽은 자는 환생함이 없고, 살아있는 자의 노력으로 사건이

52) 李憲洪, 『韓國訟事小說研究』, 三知院, 1997, 255쪽 참조

해결되는 현실지향적인 사실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인물 형상의 상관 관계에서는 家長-被害者-繼母(가해자)의 순으로 두 작품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장의 형상은 단순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가장으로서의 직책을 다 하지 못하고 전실 자식만 편애하는 협애한 인간, 가정내 신·구 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심화시키는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李玉英獄中訟冤>의 경우, 가장 李雄은 후처의 미모에 반해 후처를 따라주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며, 전실 자식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처에게 양보함이 없었다. 李雄은 먼저 죽음으로써 후처에게 활개치면서 전실 자식을 학대하고 해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장화홍련전>의 가장 배좌수는 살아있으면서도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장화의 억울한 죽음을 안 뒤, 후회하면서 슬퍼하지만 계모를 경계하면서 홍련을 보호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없어 홍련이마저 죽게 만드는 무능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피해자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두 작품 모두 피해자인 전실 자식을 효녀, 효자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후, 順從兒에서 反抗兒로 탈바꿈하여 계모와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장화 자매는 생전에는 순종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冤鬼가 되어 계모의 죄행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반항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玉英은 옥중에서 황제에게 상소문을 써 계모의 죄행을 날날이 밝히는 기발하고 담대한 여성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儒敎의 忠孝思想이 작품 속에 반영된 것이며, 封建時代 覺醒하고 있는 여성시민의 형상을 부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하고 어진 전처와는 달리 계모는 惡女의 형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성품이 추악한 惡女로 묘사되고 있으며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魔女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계모는 모두 성격이 포악하며 시기심으로 짝 차있다. 이는 韓·中 訟事小說에서 표출된 惡女 계모의 공통된 속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좀 다

른 면을 보이고 있다.<장화홍련전>에서 惡德 계모는 추악의 극치로 묘사되고 있으며 자기가 직접 장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계책을 꾸미고 남편을 사주하여 그 계책을 실행토록 하며 아들을 시켜 살인을 저지르게 한다. 음흉한 계모의 형상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惡德 계모가 미모의 여인이기는 하지만 속은 시기심으로 짝 차있으며, 자기가 직접 술에 독을 타 전처의 아들을 독살한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전처의 딸 옥영이를 하옥시켜 죽이려고 한다. 악의 극치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 동기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계모의 경우, 친 자식을 위해 전부의 재산을 수중에 넣으려는 경제적 욕망이 주된 동기로 나타난다.<李玉英獄中訟冤>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의 官職 승계라는 동기가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실 아들을 이유 없이 비참하게 죽임으로써 자기 아들의 관직 승계를 위해 장애를 없앤다.

위에서 논의된 두 작품 모두 사건의 해결단계에서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사건의 진상을 上奏 받고 최종 판결을 한다. 죄인들은 능지처참, 교살, 斷頭 등 형으로 죽게 되는데 이들의 판결동기에는 무너져가는 나라의 가족 윤리를 바로 세우고 계모들의 행실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冤>은 繼母虐待型 작품 내적 특징의 유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계모와 전처자식의 강등을 다룬 한·중 訟事小說이 유사한 진행방향으로 나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단지 유사성을 근거로 <장화홍련전>은 <李玉英獄中訟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 두 작품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두 작품 모두 자국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繼母虐待, 訟事小說, 전처자식, 作品構造, 人物形象, 人物動機

참고문헌

- 全圭泰 編, <장화홍련전>, 《韓國古典文學大全集》 I, 中央圖書, 1986, 431~446쪽.
- 馮夢龍, <李玉英獄中訟寃>, 《醒世恒言》, 三秦出版社, 1993, 505~534쪽.
- 《包公案·狄公案》, 北京燕山出版社, 1996, 8~17쪽.
- <杜亞疑酒>, 《文淵閣四庫全書》 法家類, 子部三五, 《欽定四庫全書》子部, 棠陰比事, 臺灣商務印書館, 973쪽.
- 金台俊 著/朴熙秉 校注, 『중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76~185쪽.
-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365~374쪽.
- 李憲洪, 『韓國訟事小說研究』, 三知院, 1997, 238~255쪽.
- 이현홍, 『薔花紅蓮伝』, 『古典小說研究』, 華鏡古典文學研究會 編, 一志社, 1993, 585~598쪽.
- 禹快濟, 『薔花紅蓮伝』, 『韓國古典小說作品論』, 集文堂, 1990, 739~757쪽.
- 李昇馥,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319~340쪽.
- 丁奎福, 『韓國文學과 中國文學』, 국학자료원, 2001, 367~375쪽.
- 지광준, 『범죄학』, 景仁文化社, 2003, 335~340쪽.
- 孟犁野, 『中國公案小說芸術發展史』, 警官教育出版社, 1996, 36~41쪽, 92~95쪽.
- 黃清泉·蔣松源·譚邦和, 『明清小說의 藝術世界』,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5, 135~144쪽.
- 曹亦冰, 『依義公案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 138~163쪽.
-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232~260쪽.
- 전성운, 『한·중 소설 대비의 지평』, 보고사, 2005, 9~34쪽.
-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文學과 知性社, 1990, 162~189쪽.
- 장연호, 『韓·中 訟事文學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 2006, 92~155쪽.

溫孟孚, 『"三言"話本与擬話本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4~18쪽.

<Ad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Janghwa and Hongnyun> and <Liyuying's
Grievances inprison>

Zhang, Yan-Gao

<Janghwa and Hongnyun> and <Liyuying's Grievances in prison>, which tell the story of contradictions between stepmother and ex-wife's children and the settlement process, are both excellent masterpieces of lawsuit novels in Korean and Chinese fiction history. In this paper, the correlation of structural features, characters and figures motivations have been studied.

The general construction of <Janghwa and Hongnyun> is 'birth→suffering→death→ghost of grievances redress→settlement→happy ending', and as for <Liyuying's Grievances in prison>, it turns out to be 'into poetry, into remarks, into words→birth→suffering→ex-death of wife's son→Yuying's redress→settlement'. The deep structure of the former is romantic comedy, while the latter is the realism.

In these two novels, the families are unable to do their duties. They described narrow people who love ex-wife's child only, and the people causing and deepening the contradi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Victims ex-wife's children are filial characters. When the event happens, they are not obedient any more, fighting with their stepmothers. The characters of stepmothers are both bad woman with lots of jealousy. The motive is the economic desire to obtain the

property of ex-husband for their child. In the settlement of the event, the King, who's the highest in the country, knew the truth, and made the last judgment. The motive of the judgment is to set up the right family ethics and correct the behavior of stepmothers.

In a word, these two novels show us the features and similar figures of lawsuit novels which deal with the contradictions between stepmother and ex-wife's children and the settlement process.

Key Words : abused by step-mother, lawsuit novel, ex-wife's child, work's structure, characters, figures motivations